

체코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 예상보다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조치 단행

- 체코 중앙은행(CNB)은 7월 26일, 기준금리(2주일물 repo rate)를 75bp 인하한 3% 수준으로 낮추었음. 당초 많은 분석가들은 CNB가 유럽중앙은행(ECB)의 현행 기준금리인 3.25%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50bp 정도의 인하를 단행하리라고 예상했었음.
- 이번 조치는 코로나貨 가치를 다소나마 약세로 반전시킴으로써 그동안 코로나貨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잠식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한편, 중앙은행과 새 정부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자국통화 강제로 수출경쟁력 약화

- 폴란드가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리 상승 문제를 놓고 정부와 중앙은행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데 비해, 체코는 비록 경제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어도 국내수요가 건실하여 중앙은행이 국내경기 진작을 위해 이자율을 인하할 필요는 크지 않았음.
-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대규모 유입 등으로 인해 코로나貨의 對유로화 가치가 연초 대비 16%나 상승함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체코의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주요 수출기업들이 코로나貨의 평가절상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와 중앙은행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으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수출 부문이 경제성장의 기반임을 감안한 슈피들라(Vladimir Spidla) 신임 총리는 이러한 요구에 호응하여 수출산업을 코루나貨 가치 급등에 따른 환차손으로부터 보호할 것임을 약속하였음.

- CNB의 투마(Zdenek Tuma) 총재도 코루나貨의 평가절상이 수출에 미치는 충격에 우려를 표명하였음. 그러나 6월 27일에 있었던 정부 측과의 회동에서, CNB는 코루나貨 평가절상이 수출에 미친 파장의 규모를 명백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환율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함.

□ 물가상승률 억제에 힘입어 이자율 인하

- 6월 한 달간의 경제동향 분석 결과,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7.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물가상승률은 당초 목표치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었는데, 이는 코루나貨 강세에 따른 수입상품의 가격 하락, 미 달러貨 및 국제원유가의 약세에 따른 석유·천연가스 수입비용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함.

- 이 같은 물가상승 억제에 힘입어, CNB는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보임. 동 조치 발표 직후 코루나貨 환율이 상승하여, 금융시장은 CNB의 정책개입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음.

※ 코루나貨/유로貨 : 30.27(7.25자) ⇒ 30.50(7.26자)

□ 금리 인하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여

- 그러나 이 같은 금리 인하 효과는 일시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함. 코루나貨의 최근 가치상승은 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대규모 유입에 기인한 것이며, 이 같은 대규모 직접투자 유입은 체코의 EU 가입을 앞두고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순히

금리 인하만으로는 코루나貨의 가치상승을 적정한 수준에서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체코의 금년도 재정적자가 정부 목표치인 450억 코루나의 2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경우, 금년도 재정적자는 목표치의 3배로까지 확대되고 2003년에는 무려 2,000억 코루나로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단기적인 환율안정을 위해 취한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더욱 큰 재정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전문연구원 오경일(☎3779-6646)
E-mail : OKI1122@koreaexim.go.kr